



총무원장 스님은 임기 8년 동안 매월 어려운 곳을 찾아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었다. 연말에 소의 이웃을 찾아 쌀 포대를 나르는 총무원장 스님 모습.

사람이 사는 곳에 종단이 있었다

수시로 사회적 약자 찾아 위로
취임 이후 매달 복지시설 방문
8년간 74회 걸쳐 ‘자비 실천’

지난 7월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서울 답십리정소년독서실을 찾았다. 그 시설은 희귀 난치병인 비스코트 올드리치 증후군을 앓는 최세립(14세) 군의 누나와 형이 다니는 독서실이었다. 최 군의 어머니 조상희 씨가 대신 스님을 맞이했다. 최 군은 작은 감염에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아 손님이 찾아갈 수 없었다.

세 살 때부터 난치병으로 치료중이라는 말을 들은 총무원장 스님은 최 군의 어머니에게 염주를 풀어 건넸다. “제가 늘 기도하는 염주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힘내세요.” 진심이 담긴 원장 스님의 위로에 조상희 씨는 눈물을 터트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09년 취임 이후 매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는 행보를 이어왔다. 첫 방문지는 용산참사 현장이었다. 2009년 1월 이명박 정권 초기,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적은 보상금으로 갈 곳이 없다”며 생존권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6명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농성이 펼쳐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후 첫 대외 활동으로 그 현장을 찾았다. 20여 분간 머물면서 고인들을 천도한 스님의 행보는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다양하게 이어졌다.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식 봉사를 하고, 프랑스 박물관 지하 창고에 있던 ‘적지’를 찾아낸 박병선 박사를 위로 방문했다. 당시 박 박사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자 민간인 분향소를 찾아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2010. 11)하고, 안성 하나원을 찾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축원(2011. 3)을 올리기도 했다. 겨울을 앞두고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주민들을 위로(2010. 11)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불교 복지시설만 찾은 것은 아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위로와 후원이 필요한 곳이면 발길을 디뎠다. 2010년 5월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스님이 찾은 곳은 구세군 서울후생원이었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독교계에서 운영하는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천주교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종교, 정치, 문화, 이념 대립을 넘어 차별없는 자비를 강조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시설 방문 중 눈에 띄는 곳 중 한곳이 삼정학교(구 삼흥학교)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5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삼정학교가 보증금이 없어 폐교 위기에 몰렸다. 이 소식을 들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식량난과 경제난을 피해 한국에 왔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경제적 아픔을 겪어서 되겠느냐”며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모연활동을 펼쳐 1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후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몇 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매달 한차례 갖는 시설방문에 있어 ‘사회적인 아픔’의 현장을 찾는 일도 많았다. 구미 불산누출 피해주민을 방문(2012. 10)하고, 한센병의 아픔이 아직 남아 있는 소록도(2011. 12)를 찾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달, 스님은 팽목항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았다. 또 지난 6월에는 해고 철회를 요구하던 장기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KTX 여성무원들을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장애등급폐지를 주장하면 농성중인 현장(2017.1)을 찾아 그들의 주장을 듣는 시간도 있었다.

2015년 10월 총무원장 스님의 발길은 영등포 쪽방촌으로 향했다. 한명이 겨우 생활할 정도의 공간에서 추위와 싸우며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탄과 김치를 전달했다. 수년간 지속적인 원장 스님의 자비나눔 행보에 감동을 받은 청년들과 불자들은 ‘아이연탄맨’ 캠페인을 펼쳤다. 루게릭병 환자를 지원하는 ‘아이스버지 챌린지’에서 착안한 릴레이 모금 캠페인으로, 2014년에 원장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여해 10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은 정릉3동의 장애인·한부모·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83가구의 연탄지원에 사용됐다.

나눔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 일제 압박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치중해 왔다. 그 외중에 ‘나눔’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를 잃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임기 8년동안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외로운 곳’을 찾아 자비와 보시를 베풀며 나눔의 가치를 환기 시켰다.

“긴긴 세월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 격정이 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라며 그 희망의 끈에 힘을 보태겠다.”(2017. 6월 KTX 여성무원 방문시)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이 한마디 말에서 “왜 사회 지도층이 사회의 외롭고 힘든 곳을 찾아야 하는지” 이유가 들어있다. 안익수 기자 isahn@ibulgyo.com

연도	일자	내역	대상명
2009년	11월 04일	용산 참사현장 방문	서호노인복지회관
	12월 10일	서호노인복지회관	박병선 박사
	12월 10일	박병선박사(직지대도)	
	02월 08일	다문화 가족	나눔의 집
	03월 15일	나눔의 집	해방보육원
	03월 31일	해방보육원	
	04월 14일	송가원(젊은 도자문화체험 학교)	송가원
	05월 17일	이웃충고(구세군)	구세군서울후생원
	06월 22일	파라밀요양원	파라밀요양원
	08월 25일	송가원	송가원
2010년	09월 13일	의정부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10월 09일	평화의 집	평화의 집
	11월 05일	연탄나누기(홍재동 개미마을)	개미마을
	11월 30일	연평도 포격 관련 민간인 분향소 방문	연평도 주민
	12월 24일	연평도 주민 대피 철질방 방문	연평도 주민
	01월 27일	은평천사원 방문, 구세군 방문	은평천사원
	02월 17일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03월 1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영유아 중환자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04월 1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05월 03일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2011년	06월 24일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
	07월 01일	국군수도병원	국군수도병원
	08월 17일	반야노인요양원, 낙산사상학원	반야노인요양원, 낙산사상학원
	08월 17일	전원마을(비닐하우스촌)	전원마을(비닐하우스촌)
	10월 15일	광주리죽구단	광주리죽구단
	12월 20일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소록도병원
	01월 17일	종로소방서	종로소방서
	01월 19일	개미마을 경로당	개미마을 경로당
	04월 30일	삼흥학교	삼흥학교
	07월 24일	“두개의 문”특별관람	영화인(김일란, 홍지영)
2012년	08월 14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8월 25일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12월 20일	구미 불산누출 피해 주민 방문	구미시산업단지
	02월 04일	2013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강릉)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선수단
	03월 28일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월 16일	인천해역방사원부	인천해역방사원부
	07월 01일	참전용사 집(춘곡성)	참전용사 집(신선동)
	07월 22일	브라운기념병원(화성)	브라운기념병원
	01월 23일	내성천 방문	내성천
	02월 17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014년	03월 29일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나눔 걷기대회
	04월 18일	송광성당	송광성당
	05월 22일	진도 팽목항 일대	진도 팽목항 일대
	06월 15일	점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점토마을 자재요양병원
	07월 23일	강서소방서 및 이대목동병원	강서소방서 및 이대목동병원
	09월 04일	서울시한가죽부모지원센터	서울시한가죽부모지원센터
	10월 20일	노들장애인야회	노들장애인야회
	11월 16일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12월 17일	자비나눔(천주교, 기독교) 물품전달	정릉3동주민센터(연탄나눔)
	02월 11일	정릉3동주민센터(연탄나눔)	정릉3동주민센터(연탄나눔)
2015년	04월 13일	영성부 영성고등학교(강원)	영성고등학교
	09월 03일	12사단 62연대 항로암	12사단 62연대 항로암
	10월 08일	영등포 쪽방촌	영등포 쪽방촌
	10월 18일	화산체육관(다름 어울림 한마당)	다름 어울림 한마당
	12월 22일	개미마을(연탄나눔)	개미마을
	01월 27일	성가정요양원	성가정요양원
	02월 28일	도당하우스	도당하우스
	03월 20일	신강사회복지관	신강사회복지관
	04월 28일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밭’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소밭’
	06월 01일	신록장애인보호작업장	신록장애인보호작업장
2016년	06월 27일	한부모가족(BBS기독교한민단 성금)	한부모가족(BBS기독교한민단 성금)
	07월 18일	태릉선수촌 선수단	태릉선수촌 참가 선수단
	08월 30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난치병 어린이
	09월 05일	탄지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지역민
	10월 21일	종촌종합복지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11월 06일	이주민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다름 어울림 한마당
	12월 21일	동지날축하나눔 행사	일부지역민
	01월 24일	장애등급폐지,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장애등급폐지,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02월 16일	임학성 작가방본나기	초등학교 입학생 1601명
	03월 21일	조순가정 장학금 지원(4층 집건설)	조순가정장학
2017년	04월 0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지원	세월호 미수습유가족
	05월 18일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 지역민
	06월 28일	KTX여성무원	KTX여성무원
	07월 19일	난치병어린이지원(답십리정소년독서실)	국내외난치병어린이 23명

매년 명절 불서 나누며 밝고 건강한 세상 발원

총무원장 스님 각계 각층에 불서보시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불서(佛書)는 불자는 물론 각박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묵은 때를 벗길 수 있는 대표적인 양서로 꼽힌다. 불교경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불교입문서에서부터 스님들의 일상이 담긴 에세이, 참선과 명상 수행 안내서에 이르기까지, 불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등불을 제시해 준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09년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이래 매년 명절마다 불서 2500여 권을 구입해 불교계 안팎 다양한 인사들에게 불서를 보내며 온정을 나눴다. 더욱이 불교계 지도자의 이 같은 보시는 불서 읽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면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불서 보시는 취임 후 처음 맞은 명절인 2010년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작했다. 당시 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가 펴낸 불교입문서 《부처님의 생애》를 각계에 선물로 눈길을 끌었다. 이후 부처님오신날과 추석 명절에도 불서 보시는 이어졌으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014년 제34대 집행부 출범 후 맞은 첫 번째 명절 선물도 불서를 선택했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이웃에 기쁨을 더해 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한 해를 발원하면서 귀한 날을 맞아 두 권의 책으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며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와 《마음이 행복하려면》 등 불서 2권을 사회 각계 인사 2500여 명에게 선물했다. 이 가운데 《나는 문학으로 출가했다》는 불교신문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문학인의 불교인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기획 기사를 보완해 단행본으로 엮은 구도 에세이다. 총무원장 스님은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마음까지 편안히 해주는 치유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면서 “두 권의 책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 지는 설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새해 덕담도 함께 전했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장 스님은 직접 선물할 책을 선별하는 것은 물론 책 속에 동봉하는 편지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종교인이 읽어도 불편하지 않는 불서’, ‘지혜를 증장시키고 화합의 기운을 증대해 주는 책’ 등이 총무원장 스님의 책 선별기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른 책들은 받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실제 2014년 9월 추석 때 불서를 받은 경기도 소재한 소방서의 서장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보내주신 책 《사람의 맨발》 표지사진을 보고 문득 제

어머니의 발이 떠올랐다”면서 총무원장 스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당시 그는 편지를 통해 “우리 주변이 온통 손과 발뿐만 아닌 마음에도 용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요즘”이라며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용이진 마음에 가르침을 받으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소방서 도서관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널리 읽도록 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불서 한 권이 종교를 초월해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당신은 부처님》, 《탄허록》, 《술에는 갈증이 없다》, 《붓다브레인》, 《하늘이 감춘 땅》,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현문우담》, 《마음 밭에 무얼 심지》, 《들을수록 신기한 사찰 이야기》, 《오체투지》, 《모두가 지켜야 할 계율이야기》 등 그동안 선물한 불서만 30여 권, 12만여 권에 달한다. 오는 10월31일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무원장 스님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현직 총무원장으로서 마지막 불서 보시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어떤 책으로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